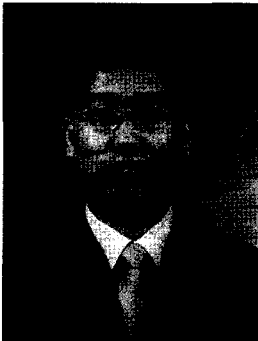


# 최근 원화 환율변동과 전망

## I. G7회담 전후의 세계 환율 동향



고 경 일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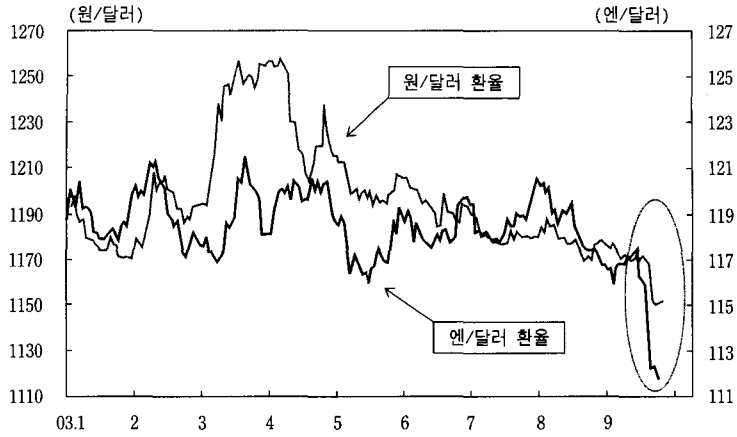
지난 22일 원/달러환율은 외환시장에서 1,151.2원으로 마감하면서 2000년 11월 17일 1,141.8원을 기록한 이후 4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엔/달러환율 또한 112.21엔을 기록하면서 올해 고점을 기록했던 지난 3월 21일(121.53엔)을 기준으로 할 때 8.3% 절상된 값을 나타냈다. 지난주까지 원/달러환율은 1,170원을 심리적 지지선으로 하여 소폭의 하락세를 이어왔고 엔/달러 역시 116엔을 저항선으로 하여 변동폭을 유지해 왔었다. 일정기간 지속되어 오던 안정적 하향세를 깨고 이러한 급락을 가져오게 한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9월 20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렸던 G7 재무장관회담이었다.

이날 회담에서 G7국가들은 미국의 입장이 강력하게 반영된 결과로 “주요 국가와 경제권의 보다 유연한 환율정책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고 이는 각국 외환시장에서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통화절상 압력을 내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여기서 ‘주요 국가’는 ‘중국 또는 일본’을 의미하며 ‘경제권’은 ‘아시아’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768억 달러(10조엔 규모)

### ■ 목 차 ■

- I. G7회담 전후의 세계 환율 동향
- II. 원/달러환율 하락, 원인은 무엇일까?
- III. 향후 원/달러환율의 향방은?
- IV. 기업과 국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대응

(최근 원/달러 환율과 엔/달러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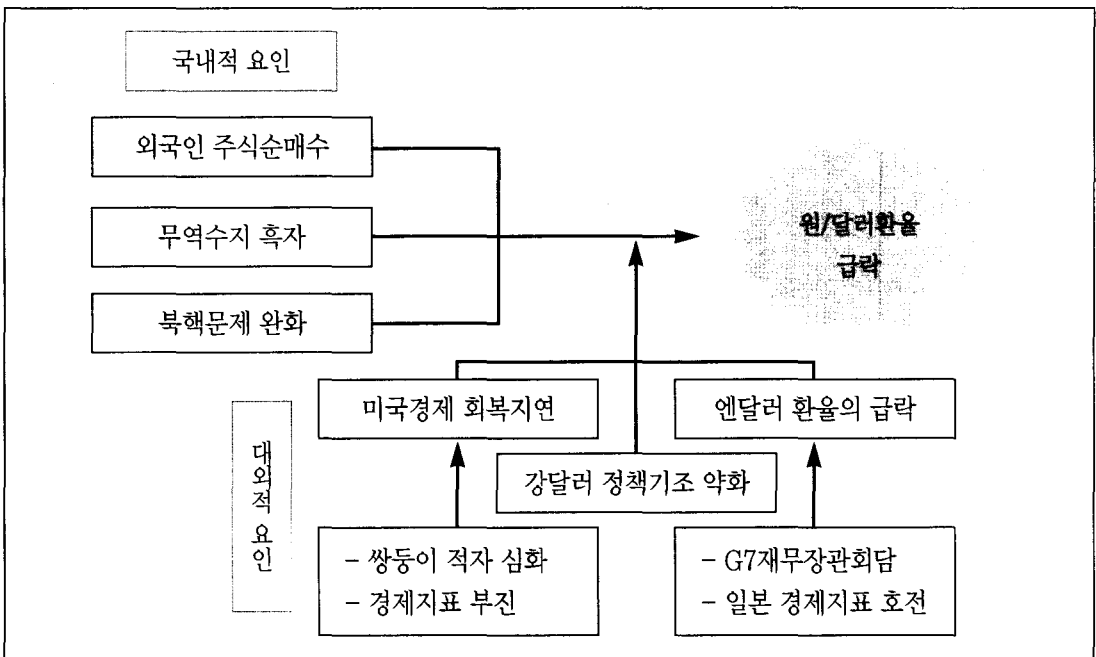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의 엔화를 매각했던 일본이 공동성명에 합의함에 따라 일본정부는 사실상 엔화 매각정책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경제신문 또한 G7회담 결과를 지켜보면서 향후 대규모의 외환시장개입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반응과 맥락을 같이 하여 엔/달러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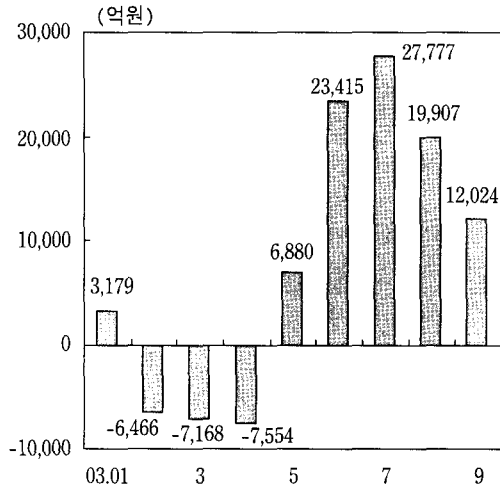
은 G7회담이 개최되기 수일 전부터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냈고 원/달러환율도 이에 동반하여 하락세를 이어 갔다.

환율의 급등락은 전세계적으로 경제불안을 야기시키고 환위험 관리방안 및 전략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준다. 무역의존도가 GDP의

(최근 원/달러환율 급락의 원인)



[2003년 외국인 주식순매수 추이]



주 : 9월은 22일까지의 누적치

80%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하락은 상대적으로 더 큰 충격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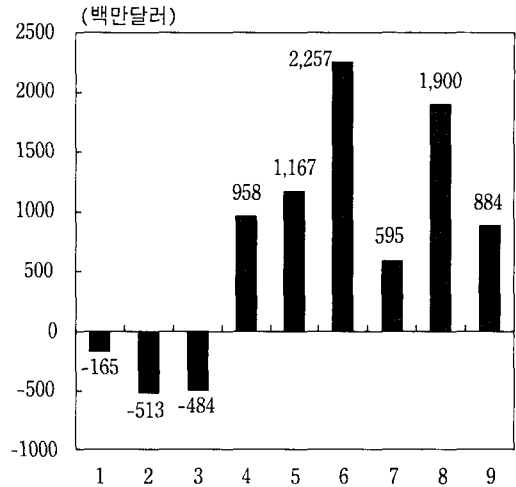
따라서 본 논고는 최근의 환율하락을 가져오게 한 구체적인 원인들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원화환율의 향방을 전망해 봄으로써 이에 따른 영향과 기업 입장에서의 대응방안 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II. 원/달러 환율 하락, 원인은 무엇일까?

최근의 원/달러 환율 하락은 국내적 요인과 대외적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국내적 요인으로는 외국인 주식순매수세 지속, 무역수지 흑자, 북핵문제의 완화 등을 들 수 있으며 대외적 요인으로는 미국 경제회복 지연, 미국 내부적인 달러화 약세정책, 엔/달러 환율 급락 등을 들 수 있다.

외국인 주식순매수 규모는 순매수세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5월말 이후부터 9월 23일 현재까지 약 8.6조원에 달한다. 이러한 외국인

[2003년 월별 무역수지 추이]



주 : 9월은 20일까지의 누적치

투자자금은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자금 공급이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원화 강세의 주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국내경기가 회복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인식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IT산업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임에 따라 국제채권시장에 몰리던 투자자들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자본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였고 IT 강국이라 할 수 있는 한국, 대만, 일본 등의 주식시장이 투자대상으로 부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외국인 주식순매수세는 7월까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다가 최근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그동안 쏟아 부은 외국인들의 투자자금이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공급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원/달러환율의 추가하락을 견인해 온 것이다.

지난 4월 흑자로 돌아선 후 6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무역수지 또한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물량 공급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원화 강세를 부추기고 있다. 8월에 19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한 무역수지는 9월

## (9월 미국 경제지표 발표 내용)

날 짜	경제지표	내 용
9/2	8월 중 ISM 제조업지수	상승(51.8→54.7, 예상 : 54.0)
9/4	실업수당 신규청구건수	증가(39만 8천건→41만 3천건, 예상 : 39만 3천건)
9/5	8월 중 비농업부문 고용자수	감소(-4만 4천명→-9만 3천명, 예상 : -1만 2천명)
9/12	8월 중 소매판매 9월 중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	감소(1.3%→0.6%, 예상 : 1.5%) 하락(89.3→88.2, 예상 : 90.2)
9/15	9월 중 뉴욕제조업지수	호조(9.98→18.35, 예상 : 15)
9/18	실업수당 신규청구건수	큰 폭 감소(42만 8천건→39만 9천건, 예상 : 41만건)

들어서도 20일 현재까지 8억 8,400만 달러 흑자를 기록 중에 있다.

2003년 초부터 원화 약세요인으로 작용했던 북핵문제가 다소 완화된 것도 원/달러환율의 하락 안정세에 큰 역할을 해 왔다. 북핵문제에 따른 한반도 위기감 고조는 한때 원/달러환율을 1,258원까지 올려놓았으나 이라크 전쟁이 종결될 시점에서 정부가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는 발언과 함께 한미공조체제의 강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북핵문제로 인한 지정학적 위험은 크게 해소되기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원/달러환율은 이후로 하락세를 지속해 왔다. 당시 최고 2.1%까지 올랐던 외평채 가산금리(spread)가 9월 24일 현재 0.83%로 크게 떨어지는 등 북핵문제로 인한 환율 프리미엄이 크게 해소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원/달러환율의 하락을 야기시키는 대외적 요인으로는 먼저 미국 경제의 회복 지연을 들 수 있다. 최근 들어, 한때 미국 증시는 제조업지수가 4개월 연속 상승하는 등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호조를 보여왔다. 그러나, 고용관련 지표들이 불안정한 수치를 나타내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는 다시 약화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의 실업수당 신규청구건수는 40만건을 전후하여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8월 중 비농업부문 고용자

수의 감소폭도 예상을 훨씬 상회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실업률은 2003년 들어 지속적으로 6.0%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 외에도 8월 중 소매판매, 9월 중 미시간대학 소비자신뢰지수 등 소비관련 지표들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둘째로, 원/달러환율의 하락은 미국정부의 달러화 약세 옹호 정책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미국은 현재 쌍둥이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국 차원에서의 '약한 달러' 정책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다. 미국의 올 상반기 경상수지적자 누계액은 2,773억 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적자규모가 전년동기 대비 20.8% 증가한 것이고 상반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9월 15일 미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 2분기 경상수지가 1,386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고 이중 무역수지적자가 1,234억 달러(전기 대비 15% 증가)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수지 적자가 급증한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국이 경기회복 기대에 따라 중국 등지로부터 수입을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미국의 재정수지도 이라크 통치 비용과 대규모 감세조치에 따른 세수 부진 등으로 올해 4,000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2004년에도 계속되어 재정적자 규모는 5,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

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무역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의 확대는 달러화 약세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원/달러환율의 하락을 초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스티븐 로치는 "미국은 현재 재정·금융정책을 거의 100%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노동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한 거시정책수단은 외환정책 밖에 남지 않았다"고 언급하면서 미국의 약한 달러 정책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하였다. 지난 20일에 열린 G7재무장관회담도 이러한 미국의 약한 달러 정책의 일환으로 위안화 및 엔화의 평가절하 논쟁을 일축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고도 보여진다. 이러한 추세는 향후 미국·유럽과 동아시아 국가간 환율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충분히 시사해 주고 있다.

셋째로, 원/달러환율의 하락 원인으로 엔/달러환율의 하락을 들 수 있다. 엔/달러환율은 최근 일본 경제지표들이 개선된 결과를 나타내면서 장기침체를 보여왔던 성장률, 투자, 소비가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8월 이후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 왔다. 지난 8월 12일 발표된 2003년 2·4분기 명목 GDP 증가율이 지난해 3·4분기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로 돌아섰다. 일본 민간경제예측기관들이 2003년도 일본경제의 성장률 예측치를 지난 5월 시점에 비해 1%나 상향조정된 것도 향후 전망을 낙관하게 하였다. 올해 들어, 일본 기업들의 설비투자 마인드도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2002년말까지 1년 6개월간 마이너스가 지속되던 기계수주가 올해는 플러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 한 증거이다. 소비심리도 조금씩 회복되는 중이다. 지난 7월 소비자 태도지수가 6월에 비해 1.3%포인트 상승한 41.8을 기록, 지난 연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일본 외환당국은 엔/달러환율의 급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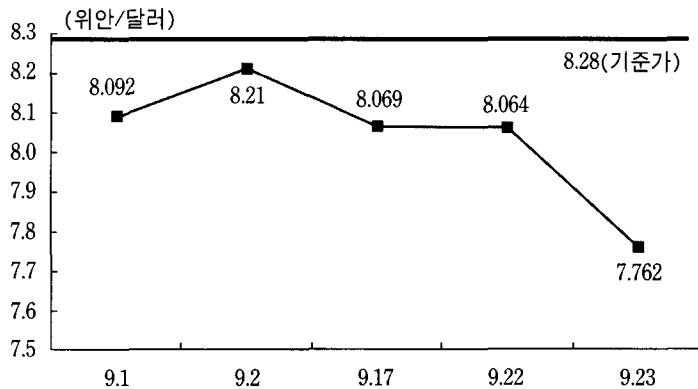
을 막기 위해 올해에만 10조엔 규모에 달하는 지속적인 시장개입을 단행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강세를 보인 것은 외국 투자자들의 엔화 자산 매입에 기인한다. 최근 국제자금은 유로화 포지션을 줄이는 대신 엔화 포지션을 늘리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유럽의 대형 연기금 같은 유럽 자금뿐 아니라 유럽에 투자했던 일본계, 미국계 자금도 유로화 자산을 줄이고 대신 엔화 자산을 사들이고 있다. 일본 증시에서 외국인 주식 순매수가 올해 4월 말 이후 8월 15일까지 18주 연속 지속되었다는 점을 통해서도 이를 감지할 수 있다.

### Ⅲ. 향후 원/달러 환율의 향방은?

향후 원/달러환율은 원화 강세요인이 우세한 가운데 추가적인 하락이 전망된다. 따라서 올해 연말까지 원/달러환율은 1,150원 이하로 떨어지면서 최하 1,100원대까지도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G7 재무장관회담의 여파, 미국 쌍둥이 적자문제 해결 지연,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경제부양 정책의 영향, 위안화 평가절상 가능성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고 국내적으로도 외국인 주식순매수세의 지속, IT산업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환율방어기재의 한계 등에서 원화 강세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G7재무장관회담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의 통화가치는 시장에서 급격한 변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엔/달러환율은 일본이 공동성명에 동참함에 따라 향후 엔/달러환율 급락을 막기 위한 외환당국의 대규모 시장개입을 당분간 자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가 하락이 점쳐지고 있다. JP Morgan은 9월 10일자로 3개월 후 엔/달러환율 전망치를 110엔으로 내 놓았고 1년 후에는 105엔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였

(최근 위안화 선물환 추이(9월))



다. Goldman Sachs도 9월 12일에 3개월 전망치를 111엔으로, 1년 전망치를 108엔으로 발표하는 등 향후 엔/달러환율의 추가 하락을 전망하였다. 위안화의 경우는 중국이 조만간 평가절상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면서 홍콩선물시장에서 통화 가치가 빠르게 조정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절상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에 유럽연합(EU)이 동조하면서 G7회담을 통해 미국과 EU가 공동 전선을 형성, 중국을 몰아붙이자 홍콩 선물시장이 이를 기정 사실화하는 반응을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1년 후 위안화 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위안화 선물환 1년물 가격이 9월 초까지 달러고정환율(달러당 8.28위안) 수준을 조금 밑도는 8.20위안선에서 거래되어 오다가 9월 23일 사상 처음으로 8.0위안선이 붕괴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 7.76위안에 거래되었다. 최근 111엔대까지 평가절상된 엔화와 함께 위안화의 평가절상 분위기는 원화의 평가절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재계회의에서 프레드 버그스텐 미국 국제경제연구소장은 중국 위안화의 25% 절상을 전제로 할 때 원화의 10% 절상이 바람직하다는 구체적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미국의 경우 쌍둥이 적자문제가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므로 무역수지 적자폭이나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적정수준으로 줄어들 때까지 미국은 약한 달러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미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을 최대한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쌍둥이 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시정책 수단이 외환정책 밖에는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적 입장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이므로 경제회복을 위한 최선책으로써 약한 달러 정책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국내적으로도 원/달러환율은 5월말 이후 지속되어온 외국인 주식순매수의 지속 가능성과 외환당국의 시장개입 여력 한계 등이 원화 강세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된다. 외국인 주식순매수는 최근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IT산업을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순매수세는 당분간 좀 더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원/달러환율 급락에 제동을 걸어왔던 외환당국의 시장개입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원화 강세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내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작을뿐 아니라 올 들어서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고 작년 이후 원화가치 절상폭도 다른 통화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G7회담 공동성명에서 유연한 환율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그 '경제권'이 동아시아라는 점과 올해 들어 9월 현재 외평채 발행규모가 6조 2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지난 7월 외평채 발행한도를 4조원 증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발행한도가 2조 8천억원 밖에는 남아있지 않다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외환당국의 시장개입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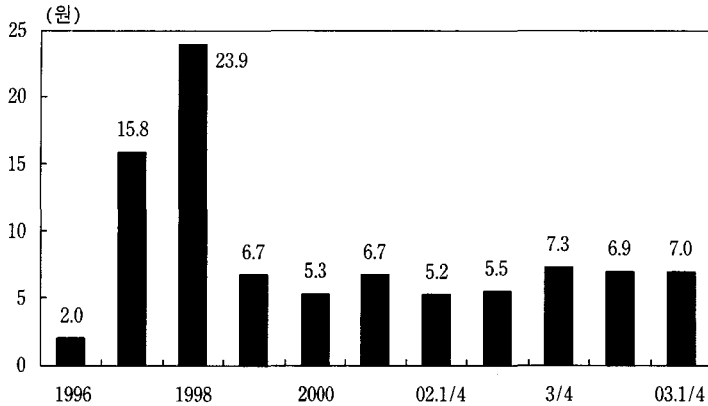
물론 원화 약세 요인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내수부진과 태풍에 따른 피해 등의 여파로 하반기에도 경기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태풍 '매미'에 따른 연간 성장률 하락이 0.2~0.5%포인트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하향 조정하고 있으며 영국계 신용평가사인 Fitch도 9월 16일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돌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러한 국내 경기회복 지연은 원화 약세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일본과 한국의 외환당국이 강경한 시장개입의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도 있다. G7회담이 있던 지난 22일 재경부는 경기회복이 부진한 상황에서의 원화절상 압력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 "정부로서는 적절한 상황대책을 수립, 대책을 지시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23일에는 환투기세력에 대한 엄중경고와 함께 "최근 환율 급변동은 비정상적"이라고 언급하면서 적극적인 구두개입에 나서고 있다. 일본도

미조구치 재무관이 "최근 엔화강세는 일부 투기세력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으며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였고 다니가키 사다카즈 신임 재무상도 "환율정책에 기본적인 변화는 없다"고 언급하면서 시장개입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외평채 발행한도에 대해서도 재경부 정책당국자는 22일 "G7회담의 영향으로 시장상황이 급변동할 경우 원화표시 외평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시장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IV. 기업과 국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대응

원/달러환율 하락, 즉 원화의 강세는 기업과 국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환율이 기업과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날로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환율이 한 기업의 존폐를 결정하기도 하고, 나아가 한 국가의 존폐를 결정하기도 할 정도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현상은 1997년 당시의 상황과는 다른 점이 너무 많다. 당시 기업들은 외환보유고 부족으로 인한 대외채무지불불이행 사태로 달러화 자금 결제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였다. 이 과정에서 금리는 초고금리로 치솟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위험에 따른 외화차입의 어려움과 외국인들의 투자위축으로 원/달러환율은 한 때 2,000원까지 급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오히려 반대의 경우를 보여준다. 현재 외환보유고는 1,380억 달러로서 역대 최고수준을 보유하고 있고 금리 또한 초저금리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또한, 원/달러환율은 미국 달러화의 약세 기조가 지속되면서 오히려 급락할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상

[환율 변동성 추이(평균 일일환율 변동폭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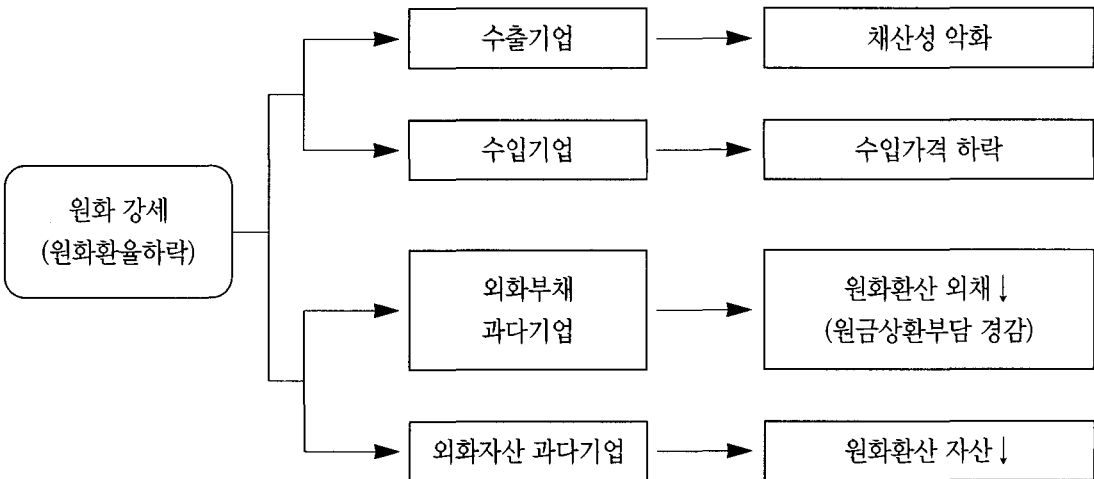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환율을 외환위기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환율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변동폭이 커지게 된다면 환율은 그 방향에 상관없이 기업 또는 국가에 위험을 더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환율은 한 기업의 수출과 수입 또는 외화를 차입하거나 외화자산에 투자할 때에 영향을 미친다. 이 외에도 기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는데 환율이 한국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다시 기업에 영향을 주는 형태가 그것이다. 특히 우리

나라처럼 무역이 GDP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자본시장이 거의 모두 개방되어 있으며 환율변동폭 제한이 철폐된 나라에서는 특히 환율의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율변동폭이 외환위기 이전에 비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는 측면도 향후 기업들의 환율변동폭의 중요성을 더욱 일깨워준다고 할 수 있다. 환율변동의 심화가 주는 영향은 환율이 안정적으로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과 다소 다르다. 불안정한 환율은 미래 환율 예측을 어

[원화 강세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렵게 하고, 환 위험을 확대시켜 기업의 무역 및 자본거래를 위축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환율 불안정기에는 환위험 관리가 어렵고 환위험 관리를 하더라도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경우(원화환율 하락) 수출 기업은 수출 채산성이 악화된다. 동일한 수출 가격하에서는 원화환산금액이 줄어 채산성이 악화되는 것이다. 반면에 수입업자는 원화환율 하락으로 수입가격이 낮아져 이득을 보게 된다. 외화부채과다기업에게는 원화 강세가 원화환산외채를 줄여줌으로써 원금상환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효과를 가져다 주며 외화자산 과다기업에게는 반대로 원화환산평가손을 부담하게 됨으로 원화환산 자산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향후 원/달러 환율은 당분간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어 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기업들은 특히 무역과 관련한 변수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분석되어 진다. 미국은 자국의 무역수지 적자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 달러화 약세 정책과 함께 강력한 통상압력을 가해올 가능성이 높다. 달러화가 본격화된 지난해 초부터 미국은 주요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에 대해 반덤핑관세, 보복관세, 수입규제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양자간 및 국제기구를 통한 통상압력을 강화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 4월 하이닉스반도체에 57%의 상계관세 적용을 결정하는 바람에 하이닉스의 대미 수출물량이 크게 줄어들은 바 있다. 특히 미국은 대외무역협상권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무역협정촉진권(TPA)을 8년 만에 부활시키면서 보호무역주의를 더욱 강화하였다. 실현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미국 경제회복 지연 정도에 따라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10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원화 절상폭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그러나, 외환당국의 시장개입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언제 환율조작국의 명을 안게 될 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는 미국의 입장변화에 달려있는 문제이므로 향후 우리나라의 무역구조를 흔들여 놓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업들은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여 자구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안된다. 정부의 시장개입 한계를 인식하여 단일한 환 관리 전략으로 일관하지 말고 환 리스크 관리방법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여 적극적인 헤징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본다. 네팅(Netting), 매칭(Matching), 리딩(Leading), 래깅(Lagging), 가격정책(Pricing Policy), 생산관리전략, 결제통화조정(Invoicing Currency Adjustment), 자산·부채관리(Asset-

### [환리스크 관리기법]

분류	관 리 기 법		
대내적 방법	네팅, 매칭, 리딩과 래깅, 가격정책, 생산관리전략, 결제통화조정, 자산·부채관리(ALM)	장 점	비교적 기법사용이 편리
		단 점	완전한 헤지 가능성 낮음
대외적 방법	선물환거래, 통화선물거래, 통화 옵션거래, 외환스왑거래, 환변동 보험 등	장 점	헤지 효과가 상대적으로 큼
		단 점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듦

Liability Management: ALM) 등의 대내적 관리방법과 외환시장 및 국제금융시장 거래를 통해 환 위험을 제거하는 대외적 관리방법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환 위험에 따른 피해를 제거 내지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되어지는 시기이다.

주류산업의 경우, 원/달러환율의 하락은 수입가격의 하락을 초래하여 위스키를 비롯한 각종 주류 수입업체들에게는 유리한 상황으로 작용한다. 주류산업의 특성상 국내 브랜드 업체들은 수출주도의 영업보다는 국내시장에서 이러한 수입상품들과 경쟁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요즘과 같이 국내 경기가 부진하여 국내시장이 불황을 겪는 상황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유입된 외국 제품들의 시장점유율 잠식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업

체들은 이러한 외국 제품들과의 경쟁에 대비하여 신제품 개발 및 마케팅 관리기법의 고도화를 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원화의 강세로 인해 수출시장을 공략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수진작에 집중함으로써 시장점유율을 유지·확대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참고 문헌]

1. 신승관, 환리스크 관리 가이드, 한국무역협회, 2002.
2. 정영식, 달러화 추가 약세 가능성 진단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03.6
3. 황인성 외, 최근 경제동향과 2004년 전망, CEO Information, 삼성경제연구소, 2003.

No great man lives in vain. The history of the world is but the biography of great man

위인은 헛되이 살지 않는다. 세계역사는 위인들의 전기에 불과하다.

- Thomas Carlyle -